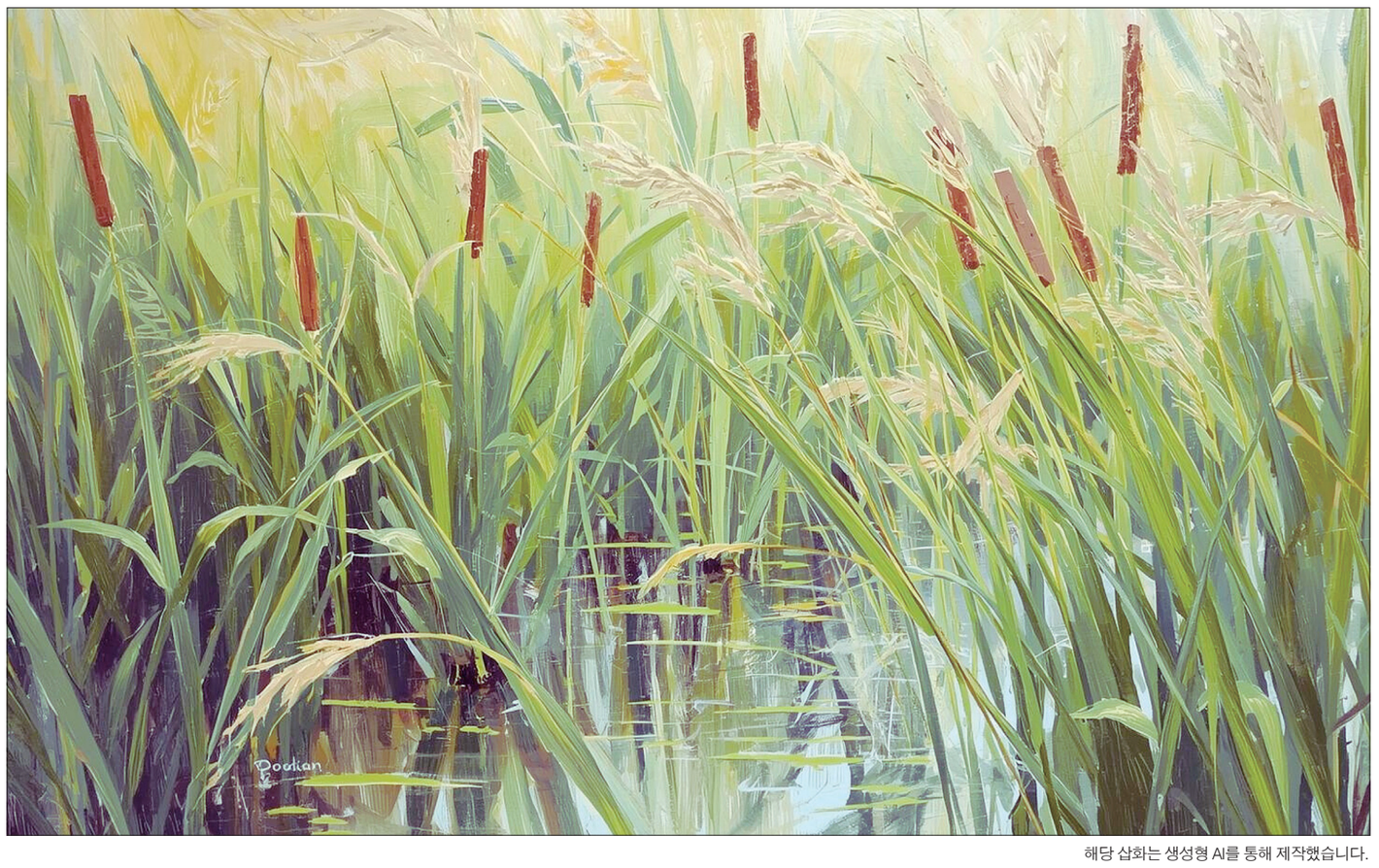
바람과 달빛 그리고 갈대

시, 불교를 만나다

㉔ 바람인가, 마음인가? : 신경림의 '갈대'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뒷산을 산책하다 인상적인 시 한 편을 만났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다가 자주 가다 보니 눈에 띈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만난 시는 다름 아닌 신경림 시인의 '갈대'였다. 2024년 작고했다는 기사가 떠올라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읽어보았다. 순간 마음에 작은 파동이 일었다. 아마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에서 내 마음이 보였던 것 같다.

인간은 어떤 대상을 보면 이미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예컨대 돼지가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으면서 탐욕이 많은 사람에 비유하곤 한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이유다. 이와는 달리 돼지꿈을 꾸고 나면 길조라며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다. 같은 대상인데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돼지의 시선에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 생각할 것 같다.

시인 역시 비유나 상징을 통해 사물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언어로 그려 낸다. 그렇다면 이번 주제인 갈대는 어떤 이미지일까? 아무래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때문인지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곤 한다. 흔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할 때도 이 사물이 등장한다. 신경림 시인 또한 세파에 흔들리며 힘겹게 사는 인간의 모습을 갈대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을 바람으로 상징되는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의 울음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진단이다. 시인은 왜 바람이나 달빛이 아니라 '조용한 울음'에서 원인을 찾은 것일까?

신경림은 1956년 〈문학예술〉에 '갈대' 등의 시가 추천돼 등단하게 된다. 흔히 '민중적 서정시인'이라 불리는 작가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정적 언어로 표현했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농민이나 노동자다. 시를 통해 신경림은 그들의 아픔과 함께했으며, 때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대중들이 그의 시에 많이 공감하는 이유다. '파장(罷場)'이란 시의 첫 부분이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요즘에는 시골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오일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다. 장이 모두 파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마음 맞는 몇몇이 친구 같은 얼굴로 막걸리 한 잔 나누는 모습이 정겹게 다가온다. 특히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는 부분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 대목은 시인이 2009년 출간한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하다.

'신경림' 하면 먼저 떠오르는 시가 바로 '농무(農舞)'다. 농부의 삶과 애환을 서정적 언어로 노래하고 있는 시다. 농무란 말 그대로 농부들이 풍물놀이에 맞춰 추는 춤을 가리킨다. 제목만 보면 흥겨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황폐해진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자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하면서 농부들의 응어리진 한(恨)을 달래는 것이다. 시인은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랬겠는가. 신명 나지 않지만, 신명 난다는 역설을 통해 현실의 아픔을 달래고 있다.

시집은 〈농무〉를 비롯해 〈가난한 사랑 노래〉, 〈길〉 등 매우 많은 편이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와 같은 동시집도 출간했으며, 산문집으로 〈민요기행〉, 〈시인을 찾아서〉 등이 있다. 만해문학상과 한국문학작가상, 단재문학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과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동국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고 2024년 지병인 대장암으로 삶을 마쳤다.

신경림, 1956년 '갈대' 등으로 등단
문제 원인 내부서 찾은 통찰력 돋보여
'내 안의 울음', 불교 성찰로 직시 가능

'갈대'는 시인이 1956년 발표한 초기 작품이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통해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시다. 그리고 그 아픔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깊이 성찰하고 있다.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 조용히 울고 있었다. /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 그는 몰랐다."

갈대를 흔드는 조용한 울음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6조 혜능(慧能)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5조 홍인(弘忍)에게 법의(法衣)를 전수받은 후 15년 동안 은거하다 역사에 극적으로 등장한다. 당시 인종(印宗) 법사가 법성사(法性寺)에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두 승려가 그 유명한 바람과 깃발 논쟁을 벌이게 된다. 한쪽에서는 깃발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바람이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혜능이 말한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논쟁의 끝을 알리는 사자후였다. 그렇다면 혜능은 왜 바람이나 깃발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다고 했을까?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봤을 텐데 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 승려의 마음에는 온통 바람으로 가득 차서 깃발을 담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승려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움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다.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큰소리로 불러도 안 들릴 때가 있다. 그 소리를 담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시인 역시 '갈대'에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갈대가 흔들리는 원인을 바람이 아니라 마음의 울음에서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는 갈대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 너무 작고 조용해서 그로 인해 자신이 흔들린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은 시인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갈대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부모나 형제 간의 갈등으로 삶이 휘청이기도 한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삶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곤 한다. 흔히 하는 것처럼 "너 때문에 그러잖아"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 시에서는 이를 '바람'이라는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만 향하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갈등이 심한 부부를 예로 들어 보자. 그들은 서로 상대를 탓하지만, 실은 내 안의 상처가 곪아서 생긴 경우도 적지 않다. 극한 상황까지 이른 부부가 해결을 위해 상담을 받아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갈등의 원인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동안 내 안의 트라우마를 모른 채 살아왔을 뿐이다. 처음에는 상처가 너무 힘들어 애써 외면했지만, 저 깊은 무의식에 오랫동안 쌓이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갈대는 오랜 시간 울면서 살아온 우리 모습을 보여 주는 상징이다.

시인이 지적한 것처럼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갈대처럼 흔들리는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우리의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이키는 반조(返照)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를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 체계도 다양하다. 예컨대 요즘 유행하는 명상을 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도 내 안의 울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외에 염불이나 절 수행 등도 나 자신을 성찰하는 훌륭한 방편이다. 이처럼 내 안의 조용한 울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인간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칠고 험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유와 반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 이런 힘이 현실에서 작동하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신경림의 시가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우리가 불교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